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20편 예정 2 · 성경의 증거

제3권 제22장 1-11절 (성경적 증거들을 통하여 선택 교리를 확증함)

?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잘 믿고 착하게 살 걸 미리 보시고 나를 고르신 걸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앞 장에서 '값없는 선택'을 정의했고, 이번 장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출발점은 가장 널리 퍼진 반론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앞날의 공로나 믿음을 미리 보시고 그에 맞춰 택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칼빈은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아무 공로 없이 존귀를 받으셨다는 점을 듭니다. 이어 에베소서 1장('창세 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으로 거룩함은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보이고, 로마서 9장의 야곱과 에서로 출생 전에 이미 구별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요한복음),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 토마스 아퀴나스 반박, '모두를 부르시는데 왜 일부만 택하시나' 하는 문제를 차례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버림받는 일(유기)도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절별 정리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함. 1-6

1. 하나님의 선택은 공로와는 관계가 없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서 앞으로 나타날 공로를 미리

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도 진리는 사람의 권위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 생각이 선택을 '예지(미리 아심)'라는 커튼으로 가려서 선택이 다른 데서 나온 것처럼 꾸민다고 봅니다. 첫 근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이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이유도 하나님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짐승이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냐”고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태중에서 무슨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값없는 선택을 비추는 가장 밝은 거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창세 전에'와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따질 여지를 아예 없앱니다.

1. 반대 입장: 미래의 공로를 미리 보고 택하심
2. 유명한 저자들의 지지도 진리를 뒤집지 못함
3.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따질 수 없는 선물
4. 그리스도가 값없는 선택의 가장 밝은 거울
5. '창세 전', '기쁘신 뜻'이 공로를 배제함

히브리서 1:2-3

그리스도가 받으신 존귀(상속자, 영광의 광채). 공로 없이 받은 존귀의 예 (칼빈은 '1:2 이하'로 참조)

²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³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4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우리의 가치를 따질 여지를 없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골로새서 1:12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합당함마저 선물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4-5

'기쁘신 뜻'을 인간의 공로와 정면으로 맞세움

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 선택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음

칼빈은 에베소서 1:4-5를 한 구절씩 뜯어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택한 자'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택하사'를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 불러내신 일로만 좁히는 해석은 억지로 꾸민 논리라고 봅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이 결정적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아담 안에서 모두 똑같은 처지에 있을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니므로, 어떤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덕이 선택의 결과라는 선언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원인을 묻는다면 바울의 답은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모든 복은 이 한 근원, 곧 하나님이 뜻하신 이들을 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옵니다.

1. '택하사'를 복음 전파 시대로 좁히면 억지
2. 존재하기 전이니 구별할 근거가 사람에게겐 없음
3.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님

에베소서 1:4

'창세 전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시점과 목적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5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의 최종 원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3. 거룩함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임

하나님의 작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행위를 고려할 자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행위를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1:9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위대로그 아니라 자기 뜻과 영원 전 은혜대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를 '거룩해질 것을 미리 보고 택하셨다'로 바꾸면 바울의 순서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반대자들은 “과거 공로가 아니라 미래 공로에 상을 주신다”고 둘러대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택에서 흘러나온 거룩함이 다시 선택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쁘신 뜻', '기뻐하심을 따라'를 거듭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은혜의 찬송인데(에베소서 1:6), 선택이 값없어야만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16과 로마서 11:35도 과거든 미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것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1. 거룩해지게 하려고 택하심. 순서를 지켜야 함
2. '미래 공로' 핑계도 결과를 원인으로 만들
3. '기뻐하심'은 하나님 자신만 고려하셨다는 뜻
4. 값없는 선택이라야 은혜만 찬송 가능

부르심은 행위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과 영원 전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에베소서 1:4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함이 선택의 목적이자 결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5

'그 기쁘신 뜻대로'. 원인은 하나님 안에 있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9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6

선택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16

주님이 먼저 택하심. 제자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는

로마서 11:35

누가 먼저 드러서 갚음을 받겠는가. 하나님께 빚 지을 사람은 없음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4. 로마서 9장의 증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논지를 더 길게 펼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로마서 9:6)는 혈통으로는 모두 복을 받았어도 선택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라는 이름을 독차지하고 믿음이 자기 결단에 달린 것처럼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칼빈은 당시 교황주의자들(로마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구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 한다고 봅니다. 바울은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 자손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중 많은 이가 언약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모든 것 위에 있어서 그분만이 누가 자녀인지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두고 예지론자들은 “야곱은 합당할 자라서, 에서는 무가치할 자라서”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라고 때를 강조합니다(로마서 9:11). 하나님께는 미래도 다 보이므로, 예지가 원인이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와 미래를 따지지 않고 행위 자체를 '부르시는 이'와 맞세웁니다.

1. 혈통상 이스라엘 ≠ 참 이스라엘
2. 경건 여부로 갈린다면 '은밀한 선택'은 군말
3.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가 예지론을 꺾음
4. 바울은 행위를 '부르심'과 맞세움
5. '택하심'과 '뜻'이 참된 원인

로마서 9:6

혈통과 선택은 다름. 언약 백성 안에서도 구별이 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로마서 9:11-13

출생 전, 선악을 행하기 전에 행위가 아닌 부르심으로 구별하심

¹¹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¹²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¹³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창세기 25:23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울이 인용한 원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5.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거

과거든 미래든 행위가 선택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을 정면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생 전의 구별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심에 근거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무슨 미묘한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바울이 놓쳤을 리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선이란 하나님이 선택의 혜택으로 주기로 정하신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원인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고 같은 태에 있었으며, 조건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이 동생보다 나은 점은 장자권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무시되고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경우에도 일부러 장자권을 넘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체가 자랑할 근거를 모두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1. 바울이 '미묘한 설명'을 놓쳤을 리 없음
2.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선은 그분이 주실 선뿐

4. 유일한 차이인 장자권마저 동생에게

5. 이삭·에브라임: 육체의 자랑을 없애심

로마서 9:11

출생 전 구별, 행위가 아닌 부르심에 근거 (앞 절 논증을 이어받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창세기 21:12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대를 잇게 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48:20

므낏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심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낏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낏세보다 앞세웠더라

6. 야곱의 선택의 영적인 성격 ^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장자권은 땅에서 받는 하찮은 복일 뿐이니 하늘 기업에 대한 선택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바울이 성경을 엉뚱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성경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상징을 통해 야곱의 영적 선택을 알리셨다는 것을 바울은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자권이 내세와 상관없다면 그것은 우스운 복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고난과 망명과 눈물 말고는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야수드 한느 천사에 대한 비유가 분명 이릅니다. 야곱과

자를 긍휼히 여기고”(로마서 9:15)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긍휼에서만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신다는 선언입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미리 아심'(로마서 11:2)은 망대 위에서 구경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3과 베드로전서 1:2, 1:20에서 보듯 정하신 뜻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같은 언약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부를 특별한 보배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출애굽기 33:19).

1. 장자권은 영적 선택을 보여 주는 땅의 상징
2. 장자권으로 야곱이 얻은 건 고난뿐이었음
3. 차이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4. '미리 아심'은 구경이 아니라 정하신 뜻
5. 언약 백성 안에서도 구별하실 자유가 있음

에베소서 1:3

땅의 복 뒤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칼빈은 '1:3 이하'로 참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로마서 9:15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 차이의 유일한 이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16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11:2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 숨겨진 소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사도행전 2:23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심이 정하심과 함께 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전서 1:2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은밀한 예정을 가리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19-20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어린양. 하나님이 두리번거리며 찾으신 게 아님

¹⁹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²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디모데후서 2:19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가면 쓴 자들 가운데 참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3:19

바울이 인용한 모세의 원문. 긍휼은 하나님의 자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인 것이다.”

선택의 근거에 대한 반론들을 반박함. 7-11

7.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최고 재판장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완고해서 말씀이 헛돌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한복음 6:37)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만 아버지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보다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본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십니다(요한복음 6:44-45). 믿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 자체가 차이를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선택하실 권한도 주장하십니다(요한복음 13:18, 15:19). 유다는 사도로 뽑혔지만 “마귀”라 불렸습니다. 직분으로 뽑히는 것은 은혜의 표시이지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몸에 접붙인 사람은 하나도 멸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요한복음 10:28-29, 17:11-12).

1.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옴
2. 택한 자도 본래는 외인. 하나님이 이끄심
3. 그리스도도 선택의 주권을 함께 가지심
4. 사도 직분 선택 ≠ 구원 선택 (유다)
5. 접붙여진 자는 하나도 잃지 않으심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यो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9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44-45

아버지가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음

⁴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⁴⁵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17:6

제자들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주신 특별한 소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9

세상이 아니라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5:19

'세상에서 택하였다'. 어디에서 택하셨는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오며 세상이 자기의 것은 사라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3:18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리스도의 선택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70

열둘을 택했으나 하나는 마귀. 직분 선택과 구원 선택은 다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갈라디아서 1:16

바울이 사도직을 은혜로 받았다는 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3:7

같은 예. 일꾼 됨은 은혜의 선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10:28-29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함. 만물보다 크신 권능

²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²⁹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¹¹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¹²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8. 선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

암브로시우스, 오리겐, 히에로니무스 같은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은혜를
잘 쓸 것을 미리 보고 은혜를 나눠 주셨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나서 이 견해를 철회하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14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스스로 물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공로를
미리 보셨다”고 답하면 끝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긍휼로 피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될 것을 미리 보고 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택할 것도 미리 보셨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다른 교부들과
갈라선 것이 아니라며 암브로시우스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칼빈은 교부들을 다 빼고
봐도 결론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행위'라는 한마디로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실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답은 출애굽기
33:19, 곧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 여러 교부가 '은혜 사용 예지론'을 주장함
2.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더 알고 철회함
3. 로마서 9:14에서 바울은 '공로 예지'로 답하지 않음
4. 교부를 빼고 봐도 성경의 답은 같음
5. 긍휼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

로마서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16

주님이 먼저 택하심.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지론을 반박할 때 쓴 근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3:19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심. 바울이 내놓은 해결책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홀히 여길 자에게 공홀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만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칼빈이 인용)

9.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묘한 논리에 대한 반박

중세 스콜라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교한 구분을 내놓았습니다. 공로에 대한 예지가 예정하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원인이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 예정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따질 때는 어떤 의미에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하셨고 그 은혜로 영광을 얻을 공로를 세우게 하셨으니, 영광은 어느 정도 공로에 따라 예정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칼빈은 먼저, 주님이 선택에서 그분의 선하심만 보라고 하시는데 그 이상을 찾는 것은 허세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논리로 겨룬다면 순서를 뒤집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도록 예정된 것은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것에 딸린 '시녀(따라오는 종)'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영광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옛 교회의 한 저자도 선택의 근거를 공로에 두는 사람들은 분수 넘게 지혜로운 제한다고 했습니다.

1. 토마스: 우리 쪽에선 공로 예지가 일종의 원인
2. 칼빈: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볼 것
3. 순서를 뒤집으면 토마스와 정반대 결론
4. 은혜 예정은 생명 선택에 딸린 '시녀'
5. 말씀의 지혜로 충분, 말싸움은 그만

(이 절에는 칼빈이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앞 절들의 근거(특히 에베소서 1:5 '기쁘신 뜻')를 전제로 논리만 다룸

10. 복음의 초청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면서 소수만 받으신다면 스스로 모순이고, 약속이 모두에게 주어졌으니 특별한 은혜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넘기고 호기심을 막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온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그 의도는 칭찬하지만 문제를 피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로 틀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부르는 규칙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기근을 보내기도하시고(아모스 8:11),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했습니다(사도행전 16:6-10). 둘째, 복음의 소리는 모두에게 가도 믿음의 선물은 드뭅니다. 이사야 53:1의 말대로 '여호와와 팔'이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부르시는 신비 앞에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오 깊도다!” 하고 함께 놀라자고 합니다. 바울에게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이고(에베소서 1:3-4, 디도서 1:1), 순서는 선택 다음에 믿음입니다(요한복음 6:39-40).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누구도 스스로 양이 될 수 없으며,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견인)이 선택의 변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 반론: 보편 초청과 특별 선택은 모순

4. 복음은 모두에게, 믿음은 선물로

5.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 견인이 그 보증

아모스 4:7

어떤 성읍엔 비, 어떤 성읍엔 가뭄. 하나님은 고르게 나눠야 하는 규칙에 매이지 않으심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아모스 8:11

말씀의 기근. 말씀이 없는 때와 곳도 있음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도행전 16: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7-10

비두니아를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심. 복음을 나눌 권한은 하나님께

⁷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⁸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⁹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¹⁰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태복음 23: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사야 53:1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음은 특별한 선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12-13

믿는 자가 자녀가 됨.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

¹²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태복음 13:5

돌밭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지는 않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마태복음 13:7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같은 역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에베소서 1:3-4

신령한 복은 창세 전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짐

³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디도서 1:1

'택하신 자들의 믿음'. 믿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마태복음 13:11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됨 (베르나르 인용 속)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베르나르 인용 속)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8:29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심 (베르나르 인용 속)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19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심 (베르나르 인용 속)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시편 103:17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르나르: 시작 없는 예정, 끝없는 영화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39-40

주신 자를 잃지 않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음. 선택 다음에 믿음 (칼빈이 자유롭게 인용)

³⁹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⁴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4-5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을 따르지 않음

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⁵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26

불신자는 그의 양이 아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29

아버지의 권능이 구원을 지키심. 견인의 근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사야 54:13

자녀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음. 제자 될 자의 수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양이 될 수가 없고 다만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이 되는 것이다.”

11. 유기(遺棄)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도 함께 다룹니다. 야곱이 선행 없이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에서도 아직 죄로 더럽혀지기 전에 '미움'을 받았습니다(로마서 9:13). 여기서 행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 눈에 뻔한 것을 바울은 못 보았다고 바울을 비판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물을 때, “에서의 악한 마음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쉽게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워진다고 말하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로마서 9:18)로 마무리합니다. 칼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뿐이라면, 버리시는 이유도 그 뜻 외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1. 에서도 악을 행하기 전에 구별되었음
2. 행위로 설명하면 바울을 비판하는 꼴
3. 바울은 '악행 보응'이라는 쉬운 답을 안 씀
4. 결론: 긍휼도 완악도 하나님의 뜻
5. 하나님의 뜻 너머에서 원인을 찾지 말 것

로마서 9:13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행위 이전의 구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14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울이 '악행 보응'으로 답하지 않은 자리

로마서 9:17

바로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 (원문에 장절 표기 없음.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다는 대목의 문맥상 근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18

공홀도 완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장 전체의 결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해와 반론

용어

선택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영원 전에 자기 뜻대로 정하신 일.

유기(遺棄)

'버려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치신 일을
가리키는 말.

예지(豫知)

'미리 아심'. 칼빈의 반대자들은 이것을 '미리 보고 반응하심'으로 이해했고, 칼빈은
'정하신 뜻과 함께 가는 앎'으로 읽는다.

예정

하나님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정하신 일로, 선택과 유기를 함께 묶어 부르는
말.

공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선행.

작정

하나님이 영원 전에 확정하신 결정.

견인(堅忍)

'굳게 참고 견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가르침.

영화(榮化)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일.

펠라기우스주의

5세기 무렵 펠라기우스를 따르던 흐름. 사람이 은혜 없이도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다고 보아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서 싸웠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선택은 하나님이 미래 공로나 믿음을 미리 보신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온다.
- 거룩함·믿음·모든 덕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다.
- 야곱과 에서는 출생 전, 행위 이전에 구별되었다. 이것이 공로설을 가장 분명하게 반박한다.
- 복음의 초청은 모두에게 가지만 믿음은 선택된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 유기 역시 하나님의 뜻 너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바울(로마서 9:18)과 칼빈은 말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